

# 심층분석보고서

신협중앙회-IT

2026.05.10

## 1장: 산업(섹터) 분석

### 1-1. 산업 정의와 비통화금융기관으로서의 신협의 위상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한 비영리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 은행법상 은행이 아닌 비통화금융기관(상호금융)으로 분류됩니다. 상호금융권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다섯 기등으로 구성되며, 금융위·금감원이 발표한 자료 기준 5대 상호금융기관의 총자산은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해 금융시스템 내 비중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협은 자산 152조 원(2024년 기준, 신협 공식 게시 수치)으로 새마을금고에 이은 2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신협협의회(WOCCU) 기준 한국은 미국·캐나다에 이은 세계 3위 신협국가입니다. 비통화금융기관이라는 분류는 통화 창출 기능을 가진 시중은행과 달리 자체 화폐 창조 권한이 없다는 의미이지만, 실질적인 여수신·결제 기능은 시중은행과 거의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어 IT 시스템 측면에서도 시중은행에 준하는 정합성·안정성·보안 수준을 요구받습니다. 특히 신협은 협동조합 정신을 표방하면서도 자산 규모와 결제 비중에서 1금융권에 근접하는 외형을 갖춘 독특한 기관으로, 학술적으로도 '협동조합 정체성과 금융기관 효율성의 긴장 관계'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 1-2. 시장 구조와 가치사슬의 이원적 성격

신협 산업은 단위조합(866개, 2024년 말 기준)과 신협중앙회, 그리고 금융결제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로 이어지는 이원 가치사슬을 갖습니다. 단위조합은 조합원 대상 여수신을 일선에서 수행하고, 중앙회는 첫째 지도·감독·검사, 둘째 여유자금 예치와 운용을 통한 유동성 조절, 셋째 결제기능과 전산 인프라 공동 운영, 넷째 공제(보험) 사업, 다섯째 신상품 개발과 교육 지원을 책임집니다. IT 관점에서 중앙회는 공동전산센터와 결제망, 온라인 채널을 단위조합에 SaaS와 비슷한 형태로 제공하는 사실상의 '금융 IT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즉 중앙회 IT 부문의 의사결정은 866개 조합의 일선 영업과 1,712개 점포의 창구 시스템 가동률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며, 중앙회 IT 직원이 작성하는 코드 한 줄이 조합원 수백만 명의 입출금에 동시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가치사슬 특성은 시중은행이 본·지점 단일 조직으로 전산을 운영하는 구조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산·집중 혼합형 모델로 작동하며, 운영 안정성에 대한 부담은 단일 은행보다 더 크다고 평가됩니다.

### 1-3. 최근 3~5년 트렌드: 디지털 전환의 네 흐름

첫째,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입니다. 신협은 2024년 12월 '신협 라이프온'과 '신협 ON뱅크'를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정식 오픈했고, 금융결제원 중계 API를 통해 타 금융기관 자산을 통합 조회·관리합니다. 둘째, 비대면 채널 강화로 신협 ON뱅크는 상호금융권 최초 비대면 조합원 가입·탈퇴, 출자금 계좌개설을 지원합니다. 셋째,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이 산업 공통 어젠다로 자리 잡았으며, 새마을금고는 2026년 4월 정보계 차세대 'MG다봄'을 약 300여억 원을 투입해 오픈했고, 농협은행은 'NEXT' 전략 아래 정보계 차세대(2023년)와 계정계 차세대 '프로젝트 NEO'(2025년~)를 추진 중이며, 신한은행은 LG CNS·SK 컨소시엄과 'THE NEXT' 차세대를 2024년 5월 마무리해 SOL뱅크 응답 속도를 6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넷째, AI와 생성형 AI 흐름이 본격화되어 신협중앙회는 2024년 10월 KAIST 김대식 교수를 초청해 '생성형 AI 2.0' 디지털금융 세미나를 개최하며 IT 어젠다를 명확히

## 심층 분석 보고서: 신협중앙회-IT

제시했습니다. 이 네 흐름은 신협이 시중은행 수준의 디지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면 조합원 이탈과 비과세 예탁금 한도 활용도 저하로 이어진다는 위기감과 결합되어, 차세대 사업의 발주 시점을 앞당기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1-4. 시장 규모와 핵심 정량 지표

신협의 자산은 152조 원이며 조합 수는 866개, 점포 수는 1,712개로 집계되고, 공제자산은 6조 1,082억 원, 공제 RBC는 334%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상호금융권 전체 자산은 1,000조 원을 초과하며, 한국은행 '2024년 말 전국 금융기관 점포 현황' 기준 상호금융권은 시중은행을 합친 규모를 능가하는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협의 순자본비율은 2011년 3.80%에서 2021년 7.05%, 2022년 6.90%까지 단계적으로 개선되어 자본 건전성 회복 추세를 보여 왔으며, 다만 2024~2025년 부동산 PF 충격으로 일부 조합 단위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해 산업 전체 평균과 개별 조합 분포의 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량 지표는 IT 시스템이 대응해야 할 트랜잭션 규모와 데이터 거버넌스 범위가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하며, 시중은행 한 곳의 시스템 부담을 단위조합 866개로 분산해 다중 운영해야 한다는 운영 복잡도까지 동반합니다. 특히 점포 수가 1,700개를 넘는다는 것은 ATM·창구 단말·POS·VAN이 결합된 백엔드 인프라가 24시간 무중단으로 가동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1-5. 규제 환경: 금융위·금감원 전담감독의 무게

신협은 5대 상호금융 중 유일하게 금융위·금감원의 전담 감독을 받는 기관입니다. 농협·수협은 농식품부·해수부,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공동 감독 체제이지만, 신협은 1금융권에 준하는 컴플라이언스 강도를 적용받습니다. 금융위는 2024년 12월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첫째 중앙회 자기자본비율을 7%까지 상향, 둘째 신협·수협·산림조합 최소 순자본비율을 4%로 단계 상향, 셋째 신협에 '경영개선명령' 제도 도입, 넷째 대체투자 건전성 분류 의무화, 다섯째 임원 자격제한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024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25년 2분기 말 기준 30% 가산이 적용되었으며, 총대출 중 부동산·건설업 부문별 30%, 합산 50% 이내 한도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규제 흐름은 IT 시스템에서 첫째 총당금 자동 산출 로직 고도화, 둘째 사업성평가 시스템 구축, 셋째 대체투자 익스포저 모니터링 대시보드, 넷째 금감원 보고용 데이터 자동화라는 네 가지 IT 과제를 곧바로 발생시키며, 신입 IT 직원이 입사 직후부터 마주할 업무 환경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 1-6. 디지털 전환 압박: 인터넷전문은행과 빅테크의 위협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가 모바일 UX 표준을 끌어올리며 상호금융권 모바일뱅킹은 상대적 열위에 놓였습니다. 신협 ON뱅크 앱스토어 리뷰에서 '이체 시 매번 튕긴다'는 사용자 불만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 필요성의 사용자 측 증거입니다. 금감원장 이찬진은 2025년 9월 19일 4대 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에서 "중앙회가 모바일 플랫폼 개선과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로 영업기반 약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빅테크와 핀테크는 단순 채널 경쟁자가 아니라 신협 조합원 자산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형태로 수집·분석해 자산관리·대출비교·간편결제 영역에서 신협의 본업을 잠식할 수 있는 위협이며, 이에 신협은 '신협 라이프온'을 통해 조합원 가게·직거래 장터·만보기·VAN 매출조회 같은 생활밀착 슈퍼앱 전략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슈퍼앱 전략은 코어 시스템과 채널 시스템의 연계 안정성, API Gateway 처리량, 캐시 전략, 보안 인증 체계를 모

## 심층 분석 보고서: 신협중앙회-IT

---

두 새로 정비해야 가능한 과제로, 차세대 정보시스템 프로젝트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1-7. 최근 핵심 이슈: 부동산 PF와 토담대 부실의 그림자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2025년 1분기 10.98%로 2022년 대비 8.29%포인트 급등했고, 신협 자체 연체율도 2023년 말 3.63%에서 2024년 말 6.02%, 그리고 2025년 6월 8.35%로 2009년 이후 16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토지 담보대출 연체율은 29.97%(2025년 6월)에 달했습니다. 신협 신용사업부문은 2024년 상반기 당기 순손실 3,440억 원으로 IMF 이후 최악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고, 결산 공시를 한 신협 634곳 중 218곳(34.4%)이 적자, 21곳은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서울경제 분석). 다만 신협은 2024년 5월 NPL 전문 자회사 'KCU NPL대부'를 설립해 2025년 4조 원 이상 부실채권 정리를 진행하며 2025년 말 연체율을 4%대 후반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T 측면에서 이 위기는 부실채권 매각 자회사 KCU NPL대부와 시스템 연계, 사업성 평가 자동화, 대손충당금 산출 시스템 고도화, 조기경보시스템(EWS) 정교화, 금감원 보고 자동화라는 일련의 신규 개발 수요를 만들어 냈으며, 본 채용에서 신입을 총원하는 명분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해석됩니다.

### 1-8. 협동조합 금융의 글로벌 맥락과 한국의 위상

세계신협협의회(WOCCU) 기준 한국 신협은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이며,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신협 운동의 사실상 지원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신협중앙연수원과 제주연수원(2025년 3월 개원)은 국내 임직원 교육뿐 아니라 해외 신협 임직원의 연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어, 신협의 IT 시스템도 한국 내 866개 조합 운영을 넘어 향후 해외 신협권 결제·정보 공유·교육 콘텐츠 송출까지 시야에 두는 확장 가능성이 잠재해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2012년) 이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신협의 위상이 재정립되어, 단위조합이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허브로 기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IT 인프라가 지원해야 할 비즈니스 다양성을 키우는 흐름입니다.

### 1-9. 산업 분석 면접 활용 포인트

부동산 PF 위기 속에서 IT의 역할은 첫째 리스크관리 시스템(여신심사·조기경보·FDS) 고도화, 둘째 부실채권 정리 자회사 KCU NPL대부와 시스템 연계, 셋째 금감원 보고용 데이터 적시 산출로 재정 의되고 있습니다. 즉 신입 IT 직원도 '리스크·컴플라이언스 IT'를 이해해야 하며,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시 맥락(노후 시스템과 규제 강화, 모바일 경쟁의 결합)을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 거시 환경을 답할 때 '비통화금융기관·세계 3위 신협국·금융위 전담감독·부동산 PF 정상화 국면·디지털 전환 가속'이라는 다섯 키워드를 일관성 있게 연결해야 산업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답변이 됩니다.

---

## 2장: 주요 기업 비교 및 대상 회사 포지셔닝

### 2-1. 상호금융 4대 중앙회 구조 비교

신협중앙회는 자산 152조 원(2024년), 866개 조합과 1,712개 점포, 금융위·금감원 전담감독, IT자회

## 심층 분석 보고서: 신협중앙회-IT

사 부채 상태에서 중앙회IT개발본부와 조합IT개발본부의 인하우스 운영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은 은행 단독 자산 600조 원 이상이며, 의왕 NH통합IT센터(연면적 9.2만m<sup>2</sup>, 1,200명)에 7,600억 원을 투자하고 IT자회사 농협정보시스템(NDS)을 보유하며, 정보계 차세대(2022~2023)와 계정계 차세대 '프로젝트 NEO'(2025~)를 진행 중입니다.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은 인터넷뱅킹 자체구축이 없어 금감원 개선권고를 받았고(2023년), BPR 시스템도 미보유(PPR 운영) 상태이며, KPMG 컨설팅을 진행 중이고 2025년 1월 사상 첫 여성 CIO 김미숙 디지털혁신 부행장을 선임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산 약 290조 원 규모로 행안부 감독을 받으며, 화곡동 통합IT센터(2018년)를 갖추고 2026년 4월 정보계 차세대 'MG다봄'(약 300억 원)을 정식 오픈했고 자회사 MG데이터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즉 4대 중앙회 가운데 신협은 자산 규모로는 새마을금고·농협 다음이지만, 감독 강도와 인하우스 IT 운영 비중에서 가장 1금융권에 근접한 운영 양태를 보입니다.

### 2-2. IT 인프라와 디지털 전략 비교

농협은 2,000억 원을 투입해 농협은행과 상호금융 전산을 분리하고 NH올원뱅크와 NH코뱅크의 이원 채널 전략을 운영하며, 농협중앙회 IT기획부가 RFP를 발주하고 농협정보시스템과 외부 SI(삼성 SDS·LG CNS)가 구현하는 정형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MG다봄' 정보계로 비즈메타·데이터 거버넌스·실시간 분석을 갖춘 데이터 중심 경영체제로 한 걸음 앞서갔습니다. 수협은 인터넷뱅킹 자체구축 미비와 BPR 부채 등 IT 부채(legacy debt)가 가장 큰 약점으로 지목됩니다. 신협은 IT 자회사가 없어 중앙회 본부 직속의 다섯 본부 체제(IT기획관리본부, 중앙회IT개발본부, 조합IT개발본부, 정보보호실, 차세대정보시스템기획단)로 인하우스 운영을 채택했으며, 신협중앙회 인사 발표 기준으로 본부장 김홍섭·권승욱·오경환, 정보보호실장 어충선, 차세대 단장 김선곤이 라인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하우스 개발 비중이 크다는 사실은 신입 개발자가 코어 시스템 코드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외주 의존도가 낮아 사내 학습 곡선이 가파르다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 2-3. 신협중앙회의 정량 포지셔닝

신협은 자산 기준으로 새마을금고보다 작고 농협상호금융보다 작지만, 금융위·금감원 전담감독을 받는 유일한 상호금융이라는 차별성과 세계 3위 신협국 위상을 갖습니다. 단위조합 수(866개)는 새마을금고(약 1,300개)와 농협(1,100여 개)보다 적지만, 도시·종교계(가톨릭 기원)·직장 기반 조합 비중이 높아 조합원 충성도와 비과세 예탁금 매력으로 도심 자산 집중도가 높은 특성을 보입니다. 시 단위 도심 조합 일부는 1조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거대 조합으로 성장했으며, 이런 거대 조합은 자체 IT 운영 인력을 갖추고 중앙회 시스템과 별도 부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즉 신협 IT 운영자 입장에서는 '866개 조합 가운데 자산·고객·트랜잭션 규모가 천차만별인 비균질 클라이언트 군'을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운영 복잡도가 발생하며, 이 점은 단일 본·지점 구조의 시중은행 IT보다 훨씬 다층적인 사용자 페르소나 설계를 요구합니다.

### 2-4. 시중은행 IT와의 격차

시중은행 차세대 사업 규모(신한 THE NEXT 약 5,000억 원 추정, 농협은행 NEO 1차 시작)에 비해 상호금융권의 IT 투자는 한 자릿수에서 수백억 원대로 소폭입니다. 기술 스택도 시중은행은 클라우드 네이티브·MSA·Spring Boot·Kubernetes를 적극 도입하는 반면, 신협은 채용 자격에서 보듯 C·Java·Oracle/Tibero·Unix를 핵심 스택으로 명시해 전통적 코어뱅킹 환경이 여전히 중심입니다. 클라우드 도입은 금융위·금감원이 2026년 1월 발표한 SaaS 망분리 규제 완화(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 심층 분석 보고서: 신한중앙회-IT

---

세척 개정안 사전예고, 2026년 2월 9일까지)를 계기로 본격화될 가능성이 큼니다. 이 격차는 양면적으로 해석됩니다. 한편으로는 시중은행 대비 첨단 기술 노출 기회가 늦다는 단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차세대 발주 시점에 모던 스택을 한꺼번에 도입할 수 있어 신입 개발자가 'Greenfield 차세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메인프레임 기반 잔존 시스템과 분산 오픈 환경의 혼재가 다소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두 환경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우대받을 여지가 큼니다.

### 2-5. 최근 1~6개월 핵심 이슈

2025년 9월 금감원장과 4대 중앙회장 간담회에서 신한 김윤식 회장이 참석해 모바일 플랫폼 개선과 PF 부실 정리를 주문받았고, 2025년 10월에는 KCU NPL대부를 통한 4조 원 NPL 정리 추진이 2026년 시무식에서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이 시행되어 신한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한 예금자보호기금 자체 운영 체제 아래 신한공제 계약이 연금저축·사고공제·기타공제별 각 1억 원 분리 보호로 제도화되었습니다. 2026년 3월 인사에서는 회장 고영철 체제가 출범했고(김윤식 전 회장 임기 종료),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로 손성은이 선임되었으며 12개 지역본부 체제(울산경남 분리, 인천경기 분리)로 재편되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공제비전선포식이 열려 공제 자산 6.3조 원과 RBC 325% 현황 위에 2026년 공제 자산 10조 원 목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흐름은 IT 사업의 우선순위가 '리스크관리 + 디지털 채널 + 공제 시스템 고도화'로 명확히 좁혀지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 2-6. 협동조합 금융기관 간 IT 자회사 보유 여부 비교

농협은 농협정보시스템(NDS), 새마을금고는 MG데이터시스템, 수협은 자체 IT 부서 중심에 외주 SI를 결합한 형태를 운영합니다. 신한은 IT 자회사를 두지 않고 중앙회 본부 직속 다섯 본부 체제로 운영하는 독자 노선을 채택했는데, 이는 비용·통제·전문성의 균형을 인하우스 쪽으로 기울인 의사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자회사가 있을 경우 임금 체계와 평가 시스템을 분리해 IT 인력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거버넌스 분리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과 지식이전 비효율 같은 단점도 동반합니다. 신한이 인하우스 모델을 유지한다는 사실은 신입 IT가 본부 정규직으로 채용된 뒤 임금·평가·복지에서 본부 일반직과 동일 트랙을 따르며, 다만 IT 직군 특성에 맞춘 별도 직무경로(개발·운영·보안·차세대) 안에서 성장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 2-7. 경쟁 포지셔닝 면접 활용 포인트

경쟁사 비교에서 신한은 약점은 모바일 UX 품질과 차세대 시스템 진척도이며, 강점은 금융위 전담감독에 따른 신뢰도와 인하우스 IT 운영의 깊이입니다. 신입 IT는 "차세대를 함께 만들고 싶다"는 빌드 마인드와 "이미 16년차 연체율 최고 등 위기 국면을 함께 정상화하겠다"는 회복탄력성을 같은 무대에서 어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MG다봄과 농협 NEO를 사례 학습 대상으로 두고, 신한 차세대가 어떤 차이점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가설을 형성해 둔다면 면접 질문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경쟁사 학습은 신협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거울이며, 단순 사실 나열보다는 '신협이 왜 다른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만의 가설을 갖추는 것이 차별 포인트가 됩니다.

---

## 3장: 대상 회사 심층 분석

## 심층 분석 보고서: 신한중앙회-IT

### 3-1. 조직 구조: 8부문 1원 22본부 2실 체제

2024년 직제개편에 따라 신한중앙회는 기존 10부문·1원·24본부·2실·1소·75팀·7반에서 8부문·1원·22본부·2실·72팀·2반 체제로 슬림화되었으며, 디지털금융이사 직위가 'IT 이사'로 격상되어 CIO와 CISO를 겸임하는 구조가 확립되었습니다(뉴스저널리즘 2024년 6월 보도). 회장 고영철과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손성은 산하에 기획조정본부(안승용)·신성장추진본부(유정근)·총무본부(김형선)·ESG경영본부(황동호)와 IT 다섯 조직(IT기획관리본부 김홍섭, 중앙회IT개발본부 권승욱, 조합IT개발본부 오경환, 정보보호실 어충선, 차세대정보시스템기획단 김선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2개 지역본부(서울·부산·울산·경남·인천·경기·대구·경북·대전·충남·광주·전남·충북·전북·강원·제주)가 단위조합 지도·감독을 수행합니다. 이 슬림화는 의사결정 라인을 줄이고 IT 거버넌스 권한을 IT 이사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노린 개편으로 평가되며, IT 직군 신입 입장에서는 본부장과 이사 사이의 단계가 짧아 의사결정 가시성이 높은 환경에서 일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3-2. 사업 구조: 신용·공제·교육지원의 본업 구성

신용사업은 단위조합 여유자금 예치, 자금운용(유가증권운용본부 정초경, 투자금융본부 허영규), 여신지원(강형민)과 수신지원(김지영)으로 단위조합 영업의 백오피스 지원을 책임집니다. 공제사업은 협동조합 보험 영역으로 자산 6.3조 원, RBC 325%, 당기순이익 537억 원(2024년), 신계약환산실적 292억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제기획본부(권나연)와 공제서비스본부(박진열) 라인이 운영합니다. 교육·지도사업은 신한중앙연수원(이재석)과 제주연수원(2025년 3월 개원 후 월 7,000명 방문)으로 수행되고, 신한연구소(최미혜)가 협동조합 정책연구·발간물을 책임집니다. 사회공헌은 신한사회공헌재단을 통해 2023년 2,065억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는데, 이는 당기순이익 3,831억 원의 54%에 해당하는 규모로 협동조합 정신이 재무 성과로 외화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상징입니다.

### 3-3. 자산·재무 현황과 정상화 궤적

2024년 기준 자산 152조 원이 정기공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신용사업부문 당기순손실 3,440억 원으로 23년 만의 적자 위기를 겪었으나, 부실채권 자회사 KCU NPL대부를 통해 2024년 약 1조 원, 2025년 4조 원 이상의 NPL을 정리해 2025년 말 조합 평균 연체율을 4%대 후반까지 회복시켰다고 2026년 시무식에서 발표했습니다. 다만 자본잠식 조합 21곳, 연체율 22%(수원동부교회신협)와 16.25%(경남 창원) 등 개별 조합 단위 부실은 잔존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정상화 궤적은 'NPL 자회사 신설 + 총당금 강화 + IT 기반 사업성평가 자동화 + 모니터링실 출범'이라는 네 가닥 정책 패키지가 동시에 가동된 결과이며, IT 인력은 이 가운데 네 번째 모니터링실 운영과 사업성평가 자동화 시스템에 가장 가깝게 위치합니다.

### 3-4. IT 조직과 차세대 정보시스템 프로젝트

신한중앙회는 IT 자회사가 없어 본부 직속 다섯 본부 체제(IT기획관리본부, 중앙회IT개발본부, 조합IT개발본부, 정보보호실, 차세대정보시스템기획단)로 IT를 운영하며, 차세대정보시스템기획단(단장 김선곤)을 별도 조직으로 신설해 차세대 사업의 거버넌스를 분리했습니다. 신한은 시중은행·새마을금고·농협처럼 별도 차세대 사업 RFP를 공개적으로 보도한 바는 적지만, 기획단의 별도 조직화, IT이사 격상, 12개 지역본부 분리, 디지털금융 세미나 개최 등 사전 단계가 누적된 정황으로 볼 때 2025~2027년 차세대 정보시스템 본 사업 발주가 임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개 RFP와 예산 규모는 미공개이므로

## 심층 분석 보고서: 신한중앙회-IT

보도된 농협 NEO와 새마을금고 MG다봄(약 300억 원), 신한 THE NEXT를 벤치마크로 추정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 차세대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차세대정보시스템기획단은 기획·설계·개발·테스트·이행의 전 사이클을 관장하는 핵심 라인으로 부상하며, 외주 SI(삼성SDS·LG CNS·SK·EY 등)와의 인터페이스가 일상 업무가 됩니다.

### 3-5. 디지털 전략: 세 모바일 앱과 마이데이터

신협 ON뱅크는 상호금융권 최초 비대면 조합원 가입과 탈퇴, 비보안매체 200만 원 송금, 직관적 UI(체감속도 30% 이상 향상), 음성뱅킹과 시각장애인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협 라이프온은 2024년 11월 출시되어 조합원 가게·직거래 장터·문화관광 예약·기부·만보기·VAN 매출조회 등 생활밀착 멤버십 슈퍼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2024년 12월 라이프온과 ON뱅크에서 정식 오픈되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협 어부바는 마스크트(2019년 도입)와 체크카드 라인업 'CLASSIC·캐시백·어부바·장보고·법인 비서형'으로 카드 사업 확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 세 앱은 모두 코어뱅킹과 채널계, 정보계, 외부 API(금융결제원·VAN사·통신사)를 동시에 연결해야 하는 복합 시스템이며, 차세대 사업과 별개로 상시 고도화가 진행되는 운영 영역입니다.

### 3-6. 차별화 포인트: 협동조합·서민금융·지역밀착·비영리성

신협은 1960년 부산 성가신협(메리 가브리엘라 수녀) 설립이라는 가톨릭계 기원과 7대 운영원칙(자발적·민주적 통제,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홍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기여, 다양성 존중)을 갖습니다. 김윤식 전 회장은 "신협은 수치가 아닌 가치를 추구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운영 3대 정신은 자조·자립·협동, 실천 과제는 경제·교육·윤리운동입니다. 이 정체성은 단지 슬로건에 머무르지 않고 IT 의사결정의 우선순위에도 반영됩니다. 가령 음성뱅킹·시각장애인 편의 기능, 만보기 같은 라이프온의 비금융 서비스, 8대 포용금융과 신협사회공헌재단 시스템 운영은 모두 협동조합 정신을 IT가 구현하는 사례이며, 이는 시중은행 IT 우선순위 체계와 명확히 다른 결을 만듭니다.

### 3-7. 리스크: PF 익스포저, 내부통제, IT 투자 여력

신협의 가장 큰 리스크는 첫째 부동산 PF·토담대 잔존 익스포저, 둘째 일선 조합 횡령·부당대출 사고(유동수 의원실 자료 2019~2024년 신협 79건), 셋째 자본잠식 조합 정리 부담, 넷째 총당금·자기자본비율 단계적 상향에 따른 IT 투자 여력 압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섯째 FDS 모니터링실 출범(2024년 8월) 이후 1년간 721건·73억 원 차단, 여섯째 KCU NPL대부 정리 성과 등 회복탄력성 지표도 명확합니다. 이 리스크 구조는 IT 부문에 두 가지 메시지를 보냅니다. 한편으로는 본업 위기가 IT 신규 투자를 압박해 차세대 예산이 보수적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 대응을 위해 사기 탐지·리스크 모니터링·보고 자동화 같은 컴플라이언스 IT 투자가 오히려 우선순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큼니다. 따라서 IT 신입은 두 시나리오를 모두 염두에 둔 다목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 3-8. 자회사 KCU NPL대부와 신협사회공헌재단의 IT 의미

KCU NPL대부는 2024년 5월 신설된 부실채권 정리 자회사로, 신협 본업의 NPL을 매각·관리해 건전성 지표를 회복시키는 핵심 도구입니다. IT 측면에서 본 자회사는 모회사 신한중앙회와 사이에서 채권 매각 데이터, 회수 현황, 총당금 조정, 회계 인터페이스를 실시간 또는 일배치로 주고받아야 하므로 통합 데이터 모델 설계가 필수입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23년 2,065억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한

## 심층 분석 보고서: 신협중앙회-IT

자선·공익 운영 기관으로, IT 측면에서는 후원자 관리·수혜자 관리·사업비 집행 추적이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회계 결산 시 본회와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 두 자회사의 존재는 신협 IT가 단일 법인 시스템이 아니라 그룹 통합 IT 거버넌스를 부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 3-9. 본점 입지와 지역본부 체제의 IT 함의

신협중앙회는 2006년 본점을 서울에서 대전 서구 한밭대로 745로 이전한 뒤, 12개 지역본부 체제로 단위조합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점 입지가 대전이라는 사실은 IT 운영 측면에서 첫째 본점·재해복구센터 분리 입지 전략, 둘째 정부세종청사 권역의 금융감독 인프라와의 거리 단축, 셋째 수도권 인재 확보 전략과의 균형이라는 세 가지 함의를 가집니다. 12개 지역본부 분리는 단위조합 지도 강화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지역별 시스템 사용자 페르소나 다양화와 데이터 거버넌스 분권화 요구가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데이터 표준화 작업이 차세대 사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 3-10. 회사 심층 분석 면접 활용 포인트

신협중앙회는 IT 이사가 CIO와 CISO를 겸임하는 특이 구조이며, 개발·인프라·보안 조직이 한 라인업 안에서 의사결정됩니다. 신입은 본부 안에서 개발·운영·보안 전체 사이클을 학습할 수 있는 반면, 외주 의존도가 큰 시중은행 대비 인하우스 책임도 큼니다. "협동조합·서민금융 가치를 디지털로 구현"이라는 미션을 코드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인재가 직무 적합성 우위를 가지는 구조입니다. 면접 답변 차원에서는 본점 대전 입지와 12개 지역본부 분리, IT 다섯 본부 체제, 자회사 KCU NPL대부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회사 이해도가 깊다고 평가받기 쉽습니다.

## 4장: 인재상/조직문화

### 4-1. 신협중앙회 공식 인재상 키워드

신협	공식	홈페이지	인재상	페이지
				(www.cu.co.kr/cu/cm/cntnts/cntntsView.do?mi=100071&cntntslId=1037)와 채용 보도에서 추출되는 핵심 키워드는 첫째 '포용과 상생을 최우선하는 금융협동조합의 가치 이해'(인재개발본부장 박영현 인터뷰, 2024년), 둘째 '미래금융을 선도할 적극적·도전적 인재'(기획조정본부장 안승용 인터뷰, 2026년), 셋째 '21세기 협동조합을 선도하는 신협중앙회와 미래를 같이할 유능한 인재'(채용 페이지 슬로건)입니다. 미션·비전(www.cu.co.kr/cu/cm/cntnts/cntntsView.do?mi=100014)에서는 '서로 돕고 함께 사는 신협정신'이 강조되고, 핵심가치(mi=100015)에서는 '복지사회 건설'이 명시됩니다. 이 인재상은 시중은행이 흔히 강조하는 '성과·혁신·디지털' 키워드와는 결이 다르며, '가치·포용·미래·협동'이라는 협동조합 정체성에 뿌리를 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4-2. 조직 문화: 공기업형 금융기관의 안정성

신협중앙회는 비영리 특수법인이며 본점이 대전 한밭대로에 위치(2006년 이전)하고, 캐치 평균연봉 6,844만 원, 잡코리아-NICE평가정보 기준 중견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시중은행 대비 보수는 낮으나 고용 안정성과 정시성, 교육투자가 높은 '공기업형 금융기관' 문화로 평가됩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 윤리강령과 행동지침의 중앙회·조합 별도 운영,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WA 인증(2025년 11월~2026년 11월) 같은 외부 인증 활동이 활발하며, 컴플라이언스와 접근성 문화가 비교

## 심층 분석 보고서: 신한중앙회-IT

적 강하게 작동합니다. 또한 협동조합 특유의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빠른 변화보다는 안정적 운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IT 부문에서 신기술 도입 속도가 시중은행보다 다소 늦지만 일단 도입된 시스템은 매우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운영 특성으로 이어집니다.

### 4-3. 금융 IT 도메인의 일반적 선호 인재 특성

첫째, 안정성·신뢰성·정확성입니다. 코어뱅킹은 99.999% 가용성과 계정 무결성을 요구하며, 한 차례의 야간 배치 오류가 다음 영업일 창구 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 책임감과 검증 습관이 중시됩니다. 둘째, 컴플라이언스 마인드입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신협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그리고 자율적으로 도입을 권고받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정신을 코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의식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 대응 책임감입니다. 야간 배치와 결제망 장애 발생 시 즉시 콜아웃·근본원인분석(RCA)·재발방지대책 문서화가 일상이 됩니다. 넷째, 도메인과 기술의 균형입니다. 여수신·공제·결제·세무·전자금융 업무지식과 Java/SQL 역량이 함께 요구되며, 한쪽만 강한 인력보다 두 영역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우대됩니다. 다섯째, 다부서 협업 능력입니다. 현업·외주 SI·금융결제원·금감원·보안업체·클라우드 벤더와의 인터페이스가 일상 업무이므로 의사소통과 일정 관리 역량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문서화와 인수인계 문화입니다. 차세대 종료 후 운영자가 그대로 인수받을 수 있는 산출물 품질이 강조되며, 개인기보다 팀 운영 적합성이 더 큰 가중치를 가집니다.

### 4-4. 협동조합 금융기관 특유의 인재 특성

신협은 첫째 사회적 가치(SV)와 재무적 가치(FV)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김윤식 전 회장의 '수치가 아닌 가치' 발언에서 드러나듯, 단기 수익성보다 조합원 효용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비재무 지표가 의사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둘째 조합원 1인 1표 민주성입니다. 주주 자본주의와 다른 의사결정 구조로, 일부 IT 의사결정조차 일선 조합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기여입니다. 8대 포용금융과 신한사회공헌재단을 통한 자선 활동이 본업과 동등한 비중으로 다뤄집니다. 넷째 세계신협협의회(WOCCU) 네트워크와 아시아 신협권 선도 위상입니다. 이 정체성은 IT 직원에게도 단지 기술자가 아닌 '조합원 자산을 보호하는 협동조합 운동가'라는 자아상을 요구합니다. 학술적으로도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정체성이 희석되었다는 비판에 신한중앙회가 사회적 가치 기반 경영으로 전략을 재정렬했다는 분석(나형중, 세명대 등 협동조합학회 논문)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 4-5. 인재상이 IT직무에 투영되는 방식

조합원 중심 사고는 UX 설계 시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 포용으로 구체화되며, ON뱅크 음성뱅킹이 그 사례입니다. 지역밀착은 라이프온의 조합원 가게·직거래 장터처럼 로컬 경제 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집니다. 비영리성은 수익성 KPI보다 시스템 가용성·장애율·보안사고 0건 같은 운영 KPI를 우선시하는 평가 체계를 만듭니다. 책임경영은 IT 이사가 CIO와 CISO를 겸임하고 정보보호실이 별도 라인으로 분리된 거버넌스로 외화되어, 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가 명확합니다. 다부서 협업은 단위조합 866개와 12개 지역본부, 중앙회 22본부, 외주 SI를 동시에 인터페이스해야 하는 일상으로 구체화됩니다. 즉 신협의 인재상은 추상적 슬로건이 아니라 IT 업무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일관되게 녹아 있습니다.

### 4-6. 평가·보상·교육 시스템의 추정 윤곽

신협중앙회는 공기업형 호봉 기반 보수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직무·역량 가산 요소를 일부 도입한 혼합

## 심층 분석 보고서: 신한중앙회-IT

---

모델로 알려져 있으며, 정보보호·차세대 같은 특수 직무에 대해 별도 전문가 트랙이 신설된 정황이 인사 보도에 일부 노출됩니다. 신한중앙연수원과 제주연수원이 직원 교육 인프라로 가동되고 있어 입사 후 일정 기간 집중 도메인 교육을 거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보처리기사·정보보안기사·SQLP 등 자격증 취득 지원과 연계 교육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동조합 정체성 교육이 별도 커리큘럼으로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시중은행이나 빅테크와 가장 차별되는 신입 사회화 과정입니다.

### 4-7. 윤리·접근성·ESG 문화의 IT 함의

ISO37001 부패방지 인증과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WA 인증, ESG경영본부(황동호) 운영은 신한 IT 산출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첫째 이해상충 방지 시스템, 둘째 웹·앱 접근성 표준 준수, 셋째 ESG 데이터 보고 자동화라는 세 영역의 개발 과제를 만들어 냅니다. 가령 ON뱅크의 음성뱅킹과 시각장애인의 기능은 WA 인증을 의식한 설계의 결과물이며, IT 신입은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코드 리뷰 항목으로 일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ESG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데이터 추출과 검증을 IT 부문이 지원해야 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데이터·AI 트랙의 잠재 업무 영역을 넓힙니다.

### 4-8. 인재상·조직 문화 면접 활용 포인트

신협 IT 인재상은 '협동조합 가치 + 금융 IT 전문성 + 회복탄력성'의 세 적합성으로 요약됩니다. 코딩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왜 신한인가"에 답할 수 있는 가치 정렬이 1차 관문이고, 이는 주주가치 극대화 논리에 익숙한 시중은행·핀테크 지원자와 명확히 구분되는 차별 포인트입니다. 지역연고제(일반직군 한정)는 IT직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대전 본점 근무 환경과 단위조합 현장 출장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해야 하며, 협동조합 정체성 교육에 대한 수용 의지가 입사 후 적응 속도를 좌우합니다.

---

## 5장: 직무 분석

### 5-1. IT직군 세부 트랙 매핑

신협중앙회 채용공고의 모집 직무는 표면상 'IT개발·관리'라는 단일 명칭이지만, 본부 구조와 직무기술서에 비춰 보면 실질적으로 다섯 세부 트랙으로 배치됩니다. 첫째 시스템 개발·운영 트랙(중앙회IT개발본부와 조합IT개발본부)은 중앙회 코어뱅킹(자금기획·유가증권·투자금융), 단위조합 공동전산(여수신원장·세무·회계), 채널계(인터넷뱅킹 bizbank.cu.co.kr와 openbank.cu.co.kr), 정보계(EDW·BI·마케팅 허브)를 운영하며 핵심 스택은 Java·C·Spring·Oracle/Tibero·Unix(AIX/Linux)이고 COBOL 잔존 가능성과 JCL 배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호환이 특징입니다. 둘째 인프라 운영 트랙(IT기획관리본부)은 데이터센터·서버·네트워크 이중화, 재해복구(DR), 백업·스토리지, 망분리(2026년 SaaS 규제 완화 대응)와 클라우드 도입 검토를 담당합니다. 셋째 정보보호·보안 트랙(정보보호실, CISO 산하)은 보안관제·SIEM·EDR·DLP, FDS 운영(2024년 8월 모니터링실 출범, 1년간 721건 차단), ISMS-P, 전자금융감독규정 준수, 보안업체·금융보안원·금감원 IT감독국과 인터페이스,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공시 시스템 운영을 책임집니다. 넷째 데이터·AI 트랙(IT기획관리본부 데이터팀, 향후 신성장추진본부 협업)은 마이데이터(2024년 12월 오픈) API·CRM·RDW/ADW, AI/ML 기반 신용평가·이상거래 탐지, 생성형 AI(2024년 디지털금융 세미나 화두), 데이터 거버넌스·비즈메타·데이터 품질관리(농협·새마을금고 차세대 사례 벤치마킹)를 다룹니다. 다섯째 디지털채널 트랙(디지털·경영지원본부)은 신한 ON뱅크(개인)·BizBank(기업)·라이프온(멤버십)·마이데이터·오픈뱅킹 API, 금융결제원 API 중계, 간편결제, 체크

## 심층 분석 보고서: 신한중앙회-IT

카드(어부바·캐시백·CLASSIC·장보고·법인비서형)를 운영합니다.

### 5-2. 하루·한 달·연 단위 업무 사이클

하루 단위로는 09:00 시스템 점검과 전일 배치 결과 확인, 10:00 현업 요건회의, 13:00 개발 또는 운영 활동, 18:00 야간 배치 사전점검과 릴리스 매니지먼트, 22:00부터 02:00까지 일배치(이자계산·계정마감)가 이어집니다. 한 달 단위로는 월말 마감 배치(여수신 잔액 확정과 결산공시 데이터 추출), 정기 보안패치, 금감원 업무보고(BOK-FSS), 변경자문위원회(CAB) 운영이 핵심 이벤트입니다. 분기 단위로는 정기공시(cu.co.kr/cu/ad/disclosureNCUFOK) 데이터 산출, FDS 룰 튜닝, 모의해킹과 취약점 점검이 진행됩니다. 연 단위로는 차세대 PI 단위 마일스톤(요건정의·설계·개발·통합테스트·이행), DR 전사 훈련, ISMS-P 사후심사, 정보보호공시가 큰 일정을 차지합니다. 이 사이클은 시중은행과 본질이 비슷하지만 단위조합 866개의 운영 캘린더가 더해진다는 점에서 변수 관리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 5-3. 이해관계자 맵

현업 측에는 자금기획본부·여신지원본부·수신지원본부·공제기획본부·감독본부·검사본부·12개 지역본부·866개 단위조합이 있고, 외부 파트너로는 금융결제원(오픈뱅킹·마이데이터 중계), 한국은행(지급결제망), 예금보험공사·신협 예금자보호기금, 금융보안원(FDS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감독기관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IT감독국·상호금융감독국)이며, 솔루션·SI 측에는 삼성SDS·LG CNS·SK·EY·KPMG·딜로이트와 Tiberio(티맥스데이터)·Oracle·IBM·Cisco·F5, 보안 솔루션사가 자리합니다. 자회사·관계사로는 KCU NPL대부, 신한사회공헌재단, 신한중앙연수원·제주연수원이 있습니다. 이 이해관계자 맵은 한 사람의 IT 신입이 입사 1~2년 안에 마주칠 회의·메일·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전체 지도이며, 시중은행보다 폭이 넓고 깊이가 다양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5-4. 필요 역량의 구체적 윤곽

하드 스킬 측면에서 채용공고가 명시한 자격은 정보처리기사와 C·JAVA·SQL·RDB(Oracle/Tibero)·시스템·N/W·보안 자격증 1개 이상이고, 경력직은 Java/C와 Oracle DB, Unix 서버 기반 개발 3년 이상이 요구됩니다. 추천 보강 스킬로는 Spring·MyBatis·SQL 튜닝,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JCL과 셸 스크립트, Linux/AIX, TCP/IP와 금융망 이해, 보안 관제와 ISMS-P, Python과 SQL을 통한 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소프트 스킬은 문서화(설계서와 운영매뉴얼), 외주 PM과의 의사소통, 장애 보고서 작성, 협동조합 도메인 학습 의지로 요약됩니다. 신입 입장에서는 자격증 1개 충족이 입구이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자격증보다 코드 가독성과 운영 책임감이 평가의 핵심이 되며, 공식 교육과 OJT를 거쳐 도메인을 차근차근 익혀 나가는 학습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 5-5. KPI: 운영 안정성과 컴플라이언스 무사고 원칙

시스템 가용성은 코어뱅킹 기준 99.99% 이상(분기 다운타임 7분 이내)이 목표이며, 장애 건수는 월 단위 P1(서비스 중단) 0건이 지향점입니다. 프로젝트 납기는 차세대와 고도화 마일스톤 100% 준수가 기본이며, 보안 사고는 침해사고와 정보유출 무사고, ISMS-P 결함 Zero가 원칙입니다. FDS 효과는 신한 모니터링실 1년 차단 73억 원·721건이라는 실적을 토대로 향후 LLM과 머신러닝 적용으로 탐지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이며, 개발 품질은 SonarQube Quality Gate와 단위테스트 커버리지 80% 이상이 일반적 기준선입니다. 이 KPI 체계는 시중은행과 큰 틀에서 유사하지만, 단위조합 866개 동시 운영이라는 분산 환경 변수가 더해져 모니터링 도구와 알람 정책이 한 단계 더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 5-6. 대표 워크플로우 시나리오

시나리오 A는 차세대 시스템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신한 차세대정보시스템기획단 주도로 코어 원장 빅뱅 또는 단계적 전환(신한 'THE NEXT'식 단계전환이 트렌드)이 검토될 수 있고, 단위조합 866개 동시 컷오버 리스크와 신규 시스템 병행운영 기간 데이터 정합성 검증이 핵심 과제입니다. 시나리오 B는 야간 배치 운영입니다. 일배치(여수신 이자·연체·과오납), 월배치(결산), 외부 인터페이스(KFTC·BOK·국세청)와의 시간 동기화가 진행되며, 장애 발생 시 익일 영업 개시 전까지 복구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C는 장애 대응입니다. ON뱅크 이체 튕김(앱스토어 리뷰 다수) 같은 실제 장애가 발생하면 CISO 보고와 금감원 보고, 고객공지, 근본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일정 안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시나리오 D는 신규 서비스 오픈입니다. 마이데이터(2024년 12월), 라이프온 VAN 매출 조회와 만보기, 5세대 실손공제 출시 등 신규 서비스가 개발과 금융감독원 신고, 금융보안원 보안성 심의, 오픈으로 이어집니다. 시나리오 E는 부동산 PF 리스크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토담대 연체율 30%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성평가와 총당금 자동산출, KCU NPL대부 매각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통합 시스템으로 묶여 가동됩니다.

### 5-7. 시중은행 IT 직무와의 차이

시중은행 IT는 외주 SI와 자회사(KB데이터시스템·신한DS·하나금융티아이·우리에프아이에스) 의존 비중이 큰 반면, 신한중앙회는 인하우스 본부(IT기획관리·중앙회IT개발·조합IT개발) 운영 비중이 더 큽니다. 시중은행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MSA, DevOps가 일상화된 반면 신한은 차세대를 통해 도입을 준비 중인 단계입니다. 시중은행은 글로벌·외화·트레이딩 시스템이 강한 반면, 신한은 비과세 예탁금·공제·세무·결제·여수신 같은 서민금융 도메인 중심입니다. 신한은 단위조합 공동전산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B2C가 아닌 B2B(866개 조합)와 B2B2C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IT 운영 특성을 보이며, 이는 시중은행 IT 직무와 가장 두드러지게 차별되는 부분입니다.

### 5-8. 신입 IT의 첫 1년 학습 곡선 추정

입사 첫 분기에는 협동조합 도메인 교육과 코어뱅킹 기본 흐름 학습, 신한 사내 표준 프레임워크와 코드 컨벤션 습득이 중심이며, OJT 기간 동안 선임 개발자와 페어로 작업하며 야간 배치와 장애 대응 절차를 익힙니다. 두 번째 분기부터는 채널계 또는 정보계 일부 모듈을 책임지며 단위 기능을 설계·구현·테스트·배포하는 미니 사이클을 경험합니다. 하반기부터는 차세대 또는 고도화 프로젝트의 보조 인력으로 합류해 현업 회의와 외주 SI 협업을 익히고, 1년차 말에는 단독 책임 모듈을 갖는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보호 트랙은 ISMS-P 사후심사 사이클에 맞춰 학습이 진행되며, 데이터·AI 트랙은 마이데이터 운영과 데이터 품질 점검 업무를 통해 도메인 데이터 모델을 익히게 됩니다. 디지털채널 트랙은 ON뱅크와 라이프온의 운영 중 이슈 해결을 통해 채널 아키텍처를 학습합니다.

### 5-9. 직무 분석 면접 활용 포인트

IT직군 신입은 차세대 빌드 인력과 운영 안정화 인력을 함께 요구하는 시점에 진입합니다. 자격증 1개 이상이라는 외형 요건 뒤에는 첫째 Java/C와 Oracle/Tibero에 대한 실무 코드 경험, 둘째 야간 배치와 장애 대응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책임감, 셋째 협동조합 도메인 학습의지가 묶여 있습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기획단·정보보호실·디지털채널 가운데 어디로 배치되더라도 통용될 '코어뱅킹 도메인 + 보

## 심층 분석 보고서: 신한중앙회-IT

---

안·컴플라이언스 + 데이터 활용'의 T자형 역량이 가장 안정적인 커리어 자산이 됩니다. 면접에서 직무 이해도를 보여 주려면 본부 다섯 라인의 역할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이 첫 1년 동안 어떤 학습 곡선을 따를 것인지 가설을 명확히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1. 신한중앙회 공식 채용공고(2026 신입 일반·IT) —  
<https://www.cu.co.kr/cu/na/ntt/selectNttInfo.do?nttSn=111858&mi=100072>
2. 신한중앙회 채용 게시판 —  
<https://www.cu.co.kr/cu/na/ntt/selectNttList.do?bbsId=1012&mi=100072>
3. 신한중앙회 인재상 —  
<https://www.cu.co.kr/cu/cm/cntnts/cntntsView.do?mi=100071&cntntsId=1037>
4. 신한중앙회 조직구성·주요업무 —  
<https://www.cu.co.kr/cu/cm/cntnts/cntntsView.do?mi=100026&cntntsId=1009>
5. 신한중앙회 미션과 비전·핵심가치 —  
<https://www.cu.co.kr/cu/cm/cntnts/cntntsView.do?mi=100014&cntntsId=1083>
6. 신한 ON뱅크 안내 —  
<https://www.cu.co.kr/product/cm/cntnts/cntntsView.do?mi=100515&cntntsId=1233>
7. 신한 ON뱅크(App Store) — <https://apps.apple.com/kr/app/신한on뱅크/id1484456647>
8. 신한 ON뱅크(Google Play)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cu.onbank>
9. 신한 2024년도 정기공시(중앙회) —  
<https://www.cu.co.kr/cu/ad/dis/dwldDisData.do?culngno=10116&fileTy=A>
10. 이데일리 신한중앙회 2026 하반기 채용 —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2397686645445640>
11. 글로벌뉴스통신 신한중앙회 2026 하반기 신입·경력 공채 —  
<https://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474169>
12. 국제뉴스 신한중앙회 하반기 채용 직무 상세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3968>
13. 마일드경제 2026 상반기/하반기 채용 일정 —  
<https://www.todaymild.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79>
14. 한국금융신문 신한중앙회 인사·IT 본부 체계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603111646168871957e88cdd5\\_18](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603111646168871957e88cdd5_18)

## 심층 분석 보고서: 신협중앙회-IT

15. 뉴스저널리즘 신협중앙회 IT 강화 조직 개편 —  
<https://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912>
1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추진계획(2024.12) —  
<https://www.fsc.go.kr/no010101/83510>
1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상호금융권 본연의 역할 회복(2025) —  
<https://www.fsc.go.kr/no010101/85925>
18. 금융위원회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 <https://www.fsc.go.kr/no010101/85924>
19. 한국경제 PF 부실 비상, 농·신협 부동산 대출 옥죈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2101421>
20. 글로벌이코노믹 상호금융권 PF 부실 도미노 — [https://www.g-eneews.com/article/Finance/2025/10/202510101705008573e30fcb1ba8\\_1](https://www.g-eneews.com/article/Finance/2025/10/202510101705008573e30fcb1ba8_1)
21. 서울경제 PF 후폭풍에 흔들리는 신협, 연체율 20% 조합까지 —  
<https://m.sedaily.com/amparticle/20019575>
22. 인사이트코리아 신협 23년 만의 적자 위기 —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12>
23. 이투데이 금감원장-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2025.9) —  
<https://www.etoday.co.kr/news/view/2508346>
24.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신협 김윤식 임기 성적표·자산 151.3조 —  
<http://www.lkp.news/news/articleView.html?idxno=68853>
25. 파이낸셜뉴스 신협 FDS 모니터링실 73억 차단 —  
<https://www.fnnews.com/news/202508071638319390>
26. 헤럴드경제 신협 라이프온 마이데이터 출시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43856>
27. 비즈니스포스트 신협 라이프온 출시(생활밀착형 슈퍼앱) —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1488](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1488)
28. 파이낸셜신문 새마을금고 MG다봄 정보계 차세대 오픈 —  
<https://www.ef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819>
29. 전자신문 NH통합IT센터 디지털 심장(7,600억 원 투자) —  
<https://www.etnews.com/20221116000118>
30. BI Korea 농협은행 정보계 차세대 RFP 분석 —  
<https://m.bi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31880>
31. 머니투데이 신한은행 THE NEXT 차세대 시스템 완료 —

- <https://www.mt.co.kr/finance/2024/05/27/2024052713464992919>
32. 디지털데일리      금융권      SaaS      망분리      규제      완화(2026.1)      —  
<https://m.ddaily.co.kr/page/view/2026011915062265051>
33. 국가지표체계(index.go.kr)      신탁      순자본비율      추이      —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090](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090)
34. 한국은행      2024년      말      전국      금융기관      점포      현황      —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801/view.do?menuNo=200561&nttId=10092024>
35. 금융결제원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안내 — <https://openapi.kftc.or.kr/service/mydata>
36. KDI      경제정보센터      전자금융사고      예방      FDS      운영      가이드라인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3367>
37. 한국협동조합학회      KISS      한국      신탁의      비즈니스모델·경영전략      변화      연구      —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901840>
38. 삼일PwC      2024      NPL      시장동향(상호금융권)      —  
[https://www.pwc.com/kr/ko/insights/issue-brief/samilpwc\\_2024-npl-market.pdf](https://www.pwc.com/kr/ko/insights/issue-brief/samilpwc_2024-npl-market.pdf)